

한·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러티브 분석

박 소 영[†]
(대구대학교)

Analysis of Narratives of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of Korea and US

So-Young PARK[†]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narratives of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s of Korea and US.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ly, what are the form and content of narratives of Korea's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of Korea and US. Second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s of American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of Korea and U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tilized for analyzing narratives of textbook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features of Korea's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are described. Secondly, the features of American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are described. Thirdly, the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countries' textbook narratives are analyzed. Lastly, the implications for diversifying the narratives of Korea's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are recommended.

Key words : History Textbook, Narrative, Elementary School

I. 서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역사를 주로 역사 수업이나 역사 교과서를 통해 가장 많이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oon, Jae-Kyung · Jeong, Mi-Ran, 2015). 이는 역사 수업과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 학습에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것으로, 양질의 역사 수업과 교과서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학생들에게 기존 지식의 소비자 개념을 넘어 새로운 지식의 생산자로 창조적인 융합인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움직임(Cho, Soo-Hyun · Park, Chang-Un, 2013)은 역사

수업과 교과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 교과서 개발 및 수업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점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권장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내러티브를 역사과에 적용한 효과와 관련하여, VanSledright & Brophy(1992)에 따르면, 5, 6학년 학생들이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과 영웅 중심의 이야기로 역사를 설명하고, 역사 지식을 내러티브의 구조로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Kang, Sun-Joo, 2011). Barton & Levstik(2004)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 자료로부터 역사적 지식을 획득할 때,

[†] Corresponding author: 053-850-4364, syoungpark@daegu.ac.kr

* 이 연구는 대구대학교 2013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정보들을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기억한다고 보고하면서,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내러티브라고 보았다(Kang, Sun-Joo, 2011).

이는 내러티브가 학습자의 흥미에 부합하고,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용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Yu, Jeong-Mi·Choi, Yong-Gyu). 그렇다면, 내러티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Bruner(1986)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 사고를 구분하여, 패러다임 사고가 논리의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보편적인 방식인데 반해, 내러티브 사고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의미를 획득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개한다(Kang, Hyun-Suk · Kim, Kyung-Su Joint Translation, 2010). 그리고 내러티브 사고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맥락적인 사고로서 인간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의미파악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Bruner, 1986). 브루너의 내러티브 사고는 논리적 지식의 획득과 달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의미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내러티브의 범위를 사고 양식에서 더 확대하여 이야기 혹은 결과물로서의 내러티브, 사고 양상으로서의 내러티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내러티브로 설명하기도 한다(Park, Min-Jeong, 2007). 이는 대화와 참여를 통한 의미구성과 관계적, 정서적, 상상적 차원을 통한 지식의 획득 및 구성이 가능한 내러티브를 강조한 것이다.

내러티브를 하나의 구조로 간주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내러티브란 아이디어와 사건들에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조직한 구조로서의 이야기이며(Kang, Hyun-Suk et al., 2007). 내러티브를 통해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의들에 비추어 볼 때, 내러티브는 저자와 독자의 대화와 참여를 허용하는 이야기이며, 관계적, 정서적, 상상적 등 다양한 차원의 의

미 구성이 가능한 이야기이며, 삶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 맥락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특히 내러티브를 활용한 역사과 서술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Jeong, Ji-Whang(2005)에 따르면, 역사가의 역사적 문제 인식과 해결을 문답적 구성으로 표현하기, 사료의 내용을 읽고 구성하며 그 가치와 한계를 논하기, 역사적 상상력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인물)의 입장에서 사고한 내용을 담기, 저자의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며, 독자를 고려하기 등이 역사 내러티브 서술의 특징으로 제시된다. Ahn, Jung-Ai(2007)는 내러티브 서술의 특징으로 화자의 존재, 구체적이고 비유적인 묘사, 인간의 존재 표현을 제시한다.

상기한 내러티브의 정의와 특징에 비추어볼 때, 특히 역사 교과서에 제시되는 내러티브는 다양한 이야기적 장르를 활용할 수 있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저자와 학습자의 대화와 참여가 가능하고, 삶에 관한 정서적,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의 이야기를 저자의 목소리 없이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는 내러티브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 역사과의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내러티브를 적용한 초등 역사수업의 효과(Lee, Ju-Yeon · Kim, In-Sook, 2014)와 내러티브 서술방식 적용을 통한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관한 연구(Jeong, Ji-Whang, 2005), 대비적 내러티브를 활용한 초등 역사교재 구성(Yu, Jeong-Mi · Choi, Yong-Gyu, 2010).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연구자가 내러티브를 자체 개발하여 수행한 것으로, 내러티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흥미를 높이고, 역사적 사고력 신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매체는 교과서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계열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면, 교사의 교수 전문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Won, Hyo-Heon, 2010).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는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학습자의 역사 교과 흥미와 역사적 사고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2009 초등 역사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은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이루어진다. Moon, Jae-Kyung(2015)의 연구에서 5, 6학년들이 가장 흥미를 보이는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결과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가 담긴 6-1 역사 교과서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내러티브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초등 역사 교과서의 내러티브를 병행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내러티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사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 역사 교과서의 내러티브 특징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내러티브의 특징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6-1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2단원: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Harcourt 출판사에서 Social Studies: The United States(2007)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Unit 2: Exploration and Settlement’를 분석하였다.

2. 분석 준거

넓은 의미에서 역사 내러티브는 역사 서술 전반을 가리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내러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내러티브란 이론적이고 형식 논리적인 지식의 설명이 아닌, ‘이야기’의 방식으로 제시된 다양한 스토리에서부터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Park, So-Young · Kim, Dae-Hyun, 2012).

내러티브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 준거로 설정한 선행연구(Park, So-Young · Kim, Dae-Hyun, 2012)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였다.

-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
- 내러티브 사례의 특징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구성과 특징 분석을 위해 내용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범위에서 다음의 항목들을 제외하였다. 연표, 지도, 사진이나 삽화, 그림, 그리고 과거 역사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텍스트와 텍스트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질문 등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의 논리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저자의 목소리가 보이는 서술,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 학습자의 정서와 감정이 담

긴 이야기를 요구하는 활동, 학습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읽기 자료 등을 내러티브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한국

가.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2단원은 도입, 소단원 4개, 정리 단계로 구성된다. 2단원에 제시된 내러티브는 본문에 서술된 내러티브, 저자의 이야기, 만화 캐릭터의 질문, 글상자의 읽기 자료,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역사 기능 등으로 구성되었다.

<Table 1> Forms and Contents of Narratives of Korea's Primary School History Textbook

Division		Form	Content
Unit	Introduction	Author's narrative	Outline and Ask a Question
Lesson	Main Text	Introduction	Outline and Ask a Question
		Text	Stimulate Student's emotion
		Caricature's narrative	Ask a Question or Give information
		Text box	Reply or Enrich Text
	Small story, Big History	Give a Question and reading materials	
Unit	Last	History Skill	Give Problem-Solving Activities

나. 내러티브의 사례

도입단계에서 제시된 내러티브는 저자가 본문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핵심 내용을 안내하는 질문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단원의 도입부에 제시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19세기말 우리나라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의 여러 나라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우리 민족은 여러 방법으로 외세와 맞서 싸우며 저항하였으나 무력을 앞세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강압적인 식민

통치를 겪었다. 우리 민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19세기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살기 어려워진 백성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 밖으로는 서양과 일본의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선은 세도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서양과 일본의 세력을 막아 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은 서양과 일본의 세력을 어떻게 막아 내려 하였을까? 조선이 개항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위의 사례는 단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자가 해당 단원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안내하는 질문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저자의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들도 역사적 사고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대단원과 소단원의 도입 내러티브 뒤에는 주제 학습을 위한 내용이 설명된다. 주제 학습을 위한 내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본문이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저자가 이야기를 건네는 식으로 서술되었거나 저자의 사고 과정이나 가치판단이 드러나거나,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학습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서술된 부분을 내러티브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나 글상자, 작은 이야기 큰 역사 등을 제외한 본문의 내용 중,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의 목소리 없이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형태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서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묘사하며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특히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단원에서 해당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헌병 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였다. 살아남아도 감옥에 갇혀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렸다. (p. 88)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이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비싸진 토지 사용료와 늘어난 세금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p. 89)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려 간 사람들도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힘든 일을 하였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은 날품을 팔거나 구걸하며 먹고살았고, 주로 도시 주변 토막집에서 살았다. (p. 89)

위의 사례들에 나타난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렸다’,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힘든 일을 하였다’ 등은 저자의 감정을 표현한 어휘로 볼 수 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삶에 대한 저자의 감정이 담긴 표현은 학습자에게 역사적 감정이입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 글상자의 읽기 자료, ‘작은 이야기 큰 역사’ 등의 내러티브가 있다. 만화 캐릭터의 이야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강화도 조약은 왜 불평등 조약일까요?
- 박규수가 일본 및 서양 세력과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최익현이 일본 및 서양 세력과 통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근대 문물이 들어와서 편리해진 점은 무엇일까요?
- 일제는 낫그릇, 가마솥, 농기구와 같이 금속으로 된 생활 도구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친근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생각해볼 질문을 제시하거나, 본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들이다. 학습자는 만화 캐릭터의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 보다 재미 있고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만화 캐릭터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답을 찾으려는 사고 활동을 수반하게 된다.

글상자의 읽기 자료들은 만화 캐릭터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본문 내용을 보충, 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 서양 통상에 대한 찬반의 입장

- 단발령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 근대 문물(기차, 전화, 전차)
- 일본의 독도 강탈
- 조선 태형령
- 한국광복군 창설
-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 일제 강점기 어느 학생의 생활, 일제 강점기 국 어학자의 저항, 역사학자의 저항

위의 사례에서 찬반의 입장에 관한 글로는 서양 통상과 단발령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찬반의 의견을 내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가치판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강탈과 조선 태형령, 한국광복군 창설 이하의 내용들은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글상자의 읽기 자료들 중, 만화 캐릭터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목표의식을 가지고 읽도록 서술되었으며, 읽기 자료와 관련된 화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이야기 큰 역사’ 내러티브는 제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사진이나 삽화 등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보통 소단원별로 1~2개씩 제시되어 있으며, 만화 캐릭터나 글상자를 많이 활용한 소단원에서는 생략되기도 한다. ‘작은 이야기 큰 역사’ 내러티브의 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 조선왕조의례는 왜 프랑스에 있었을까
-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까닭은 무엇일까
- 유관순이 고향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 윤동주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을까

‘작은 이야기 큰 역사’에서 제목으로 제시한 질문들은 주로 인물을 다루고 있으며 왜(Why), 무엇(What), 어떻게(How)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를 허용한다. 또한 작은 이

야기 큰 역사에 포함된 내러티브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의 읽기 자료뿐만 아니라 질문 대상의 실물 사진, 그림, 건축물, 문학 작품(시)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무척 흥미로운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 기능으로 표현된 내러티브는 학습자의 문제해결활동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원에서는 역사 기능으로 ‘시사만평 읽기’를 제시하였으며, 4단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 시사만평이란 무엇일까
- 시사만평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 질문에 답하며 시사만평을 읽어 보자
- 시사만평을 스스로 읽어 보자

‘시사만평 읽기’에서는 만화 캐릭터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이해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의 경험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도출할 수 있는 내러티브라 할 수 있다.

다. 내러티브의 특징

우리나라 초등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원의 도입, 주제 학습, 정리 단계에서 골고루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둘째, 저자의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흥미 유발 및 핵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단원의 도입 내러티브는 저자의 목소리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개관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만화 캐릭터(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가 만화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면서 학습 내용에 대한 친근함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습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글상자의 읽기 자료의 경우 만화 캐릭터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작은 이야기 큰 역사’는 왜, 무엇, 어떻게를 묻는 질문과 그에 답할 수 있

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정리 단계의 역사 기능에 활용된 내러티브는 학습자가 다양한 상상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미국

가. 내러티브의 형식과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단원(Unit)은 3개의 중단원(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단원은 3~4개의 소단원(Lesson)으로 구성된다. 대단원의 도입과 소단원의 도입, 본문, 정리 단계에서 제시된 내러티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Table 2> Forms and Contents of Narratives of American Primary School History Textbook

Division	Form	Content	
Unit	Introduction	Practice	Read the paragraphs, and identify details that support the main idea
		Apply	Read the paragraphs, and answer the question
	Start with a Journal	The log of Christopher Columbus	
Lesson	Introduction	You Are There	History including reader
	Main Text	Text	Narrative Text
		Biography	Presented in most of the lesson
		Children in History	Depending on the lesson
		Points of View	
Review	Critical Thinking Write A Scene		
Chapter	Last	Critical Thinking	Present questions
Unit	Last	Critical Thinking	Present questions
		Activities	Writing, Project, Read More, Online adress

나. 내러티브의 사례

대단원의 도입부에 제시된 ‘Practice’와 ‘Apply’는 Skill을 소개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내러티브이다. ‘Practice’에서는 ‘Skill’을 소개하며, ‘Apply’에서는 이를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원에 제시된 기능은 핵심 아이디어와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익히기 위해 Taino라는 미국 원주민을 소재로 한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어서 제시되는 ‘Start with a ~’는 저널, 시, 이야기 등으로 시작하는 내러티브이다. 이 단원에서는 저널로 시작하며, 콜럼버스의 행적을 소개한다. 1492년 9월 9일, 10월 11일, 10월 12일의 기록을 담고 있으며, 덧붙여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하나의 질문은 핵심 아이디어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며, 또 하나의 질문은 학습자에게 콜럼버스가 했던 것과 같은 긴 여행에 도전할 수 있겠는지 아닌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각 소단원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You are there)’로 시작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당시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가정한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97년 6월이다. 너는 한 달 넘게 바다에 있다. 앞서 너는 영국에서 콜럼버스의 탐험에 대해 듣고 이 여행을 하기로 서명을 했다. 그러나, 지금 너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배 주변에 자욱하다.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는 듯 보인다. 한 승무원은 ‘차가운 공기가 뺏속까지 축게 한다’고 말한다. 너는 안개 속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다. 밖의 모든 것이 불안스럽다. (p. 118)

1650년이다. 너는 아래에 거대한 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있다. 두 달 전에 너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메릴랜드 식민지로 왔다.

땅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런던의 거리와 매우 다르게 보인다. 담배 밭과 다른 농작물들이 시선이 머무는 데까지 펼쳐진다. 너는 런던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메릴랜드에 왔다.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너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p.

194)

위의 사례들은 과거의 상황 속에 학습자를 배치하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마치 역사 속의 인물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는 일종의 타임머신과 같은 장치이다. 학습자들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You are there)’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시간을 여행하게 된다.

한편, 본문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 이외에 내러티브 형태로 서술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저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술이었다. 예를 들면, 탐험을 비즈니스로 간주하면서 ‘위험과 보상’, ‘기업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한 부분이 있다.

탐험가들은 기업가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기업가가 사업을 개시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탐험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흔히 탐험가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탐험의 모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했다. 선박과 물품들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했다. 또한 많은 위험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배가 가라앉을 수가 있고, 탐험가가 값비싼 물품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p. 112)

위의 사례 중에서 특히 ‘흔히 탐험가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얻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탐험의 모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했다’는 문장은 탐험가의 자질 또는 역할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문 중에 하나의 주제(상황, 인물 등)를 여러 문단에 걸쳐 서술한 내러티브들이 있다. 예를 들면, Chapter 3의 Lesson 2에서는 콜럼버스와 다른 탐험가들의 항해와 탐험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Chapter 4의 Lesson 3에서는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 호의 항해와 서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하나의 소단원은 동일한 주제 아래 각 문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로 서술되어, 동일한 대상이 주어 또는 목적어로 반복하여 제시된다. 한 사례로 메이플라워 서약에 관한 문단은

다섯 문단으로 구성된다.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플라워는 버지니아를 향했지만, 폭풍이 불면서 배를 코스에서 벗어나게 했다. 대신에 메이플라워는 지금 매사추세츠인 Cape Cod에 상륙했다.

정착자들은 정부가 없는 곳에 도착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은 서약 또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메이플라워 서약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서명자들은 공정한 법이 식민지의 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메이플라워 서약은 서명한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군주가 통치하던 시절에 셀프-정부는 매우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또한 메이플라워 서약은 대다수의 규칙이라는 아이디어를 포함했다. 과반수의 사람들이 어떤 법이나 결정에 동의한다면, 모두가 그것을 따라야했다. (p. 160)

위의 사례는 메이플라워 서약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 지식을 간단히 전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메이플라워 서약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서부터 서약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단에 걸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는 하나의 주제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전기(Biography)의 경우 대부분의 소단원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한 쪽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단원의 전기들은 신뢰성, 존경, 책임, 공정, 돌봄, 애국의 6가지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의 전기에 하나의 가치가 반영되었다. 제시된 전기들은 다음의 인물의 삶을 통해 주요 가치를 다룬다.

Estevanico(노예로 팔려간 아프리카인,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 북미를 탐험하던 중에 사망)_신뢰성 (p. 133)

Bartolomé de Las Casas(북미 원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유럽인)_책임 (p. 151)

Pocahontas(추장의 딸, 정착민들과의 평화적 관계를 형성)_돌봄 (p. 157)

Anne Hutchinson(종교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미

국 원주민의 공격에 의해 사망)_공정함 (p. 185)

4건의 전기를 살펴보면, 억울했지만 주인의 신뢰를 얻어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노예, 원주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던 유럽인, 정착민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었던 원주민 추장의 딸, 모두에게 공정한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일하다가 원주민의 공격으로 사망한 유럽인 등의 삶이 이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기들은 노예, 유럽인,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지위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으며, 신뢰, 책임, 돌봄, 공정함 등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내세우면서 인물들의 삶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각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기가 담고 있는 신뢰, 책임, 돌봄, 공정함 등의 가치들을 생각해보도록 요구한다. 전기에 포함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Estevanico의 행동은 어떻게 그가 신뢰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가? (p. 133)
- Bartolomé de Las Casas는 북미 원주민들의 대우를 위한 책임감을 어떻게 가졌는가? (p. 151)
- Pocahontas의 행동은 어떻게 그녀가 타인을 돌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p. 157)
- Anne Hutchinson은 어떤 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투쟁했는가? (p. 185)

위의 질문들은 전기를 읽고, 전기가 의도한 가치에 대해 해당 인물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또 다른 내러티브로는 ‘역사 속의 아이들(Children in History)’, ‘관점(Points of View)’, ‘비판적 사고 기술’ 등이 있다. ‘역사 속의 아이들’ 코너에서는 콜럼버스의 탐험에 동승한 선원들 중의 한명인 12세 소년 Diego Bermúdez를 소개하였다.

전략... 디에고는 배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사환이었다. 사환은 대부분의 선원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요리, 세탁, 시간을 확인하는 일 등을 한다. 디에고는 30분짜리 유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확인했다. 디에고는 모래가 유리의 바닥까

지 모두 떨어지는 30분 간격으로 벨을 울리고 짧은 기도를 외쳤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통해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여러분은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p. 114)

위의 사례에서는 학생들 또래의 과거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을 수 있게 된다.

인물에 대한 내러티브가 ‘전기’의 형태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도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서술되는데, 이때는 ‘전기’가 추구했던 것처럼 가치와 관련짓기 보다는, 탐험과 정착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다.

‘관점(Points of View)’이라는 제목의 내러티브는 콜럼버스의 탐험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한 뒤에,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하나는 요약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현재와 과거를 관련지을 수 있는 질문이다.

- ① 아메리카 원주민 리더: 콜럼버스의 도착은 처음부터 재난이었다. ... 그는 즉시 카리브 섬의 인디언들을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다.
- ② 교사 작가: 콜럼버스 항해의 주요한 장기적인 중요성은 그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규모로 세상의 사람들을 섞어 놓았고, 미국이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사회가 되는 과정을 촉발시켰다.
- ③ 교사 작가: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히스파니올라 섬에 많은 타이노족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수의 급격한 감소는 유럽 계약의 가장 놀라운 즉각적인 영향이었다.

이제 여러분 차례

- 관점 요약하기
- 관련짓기. 여러분과 친구는 왜 하나의 사건이나 아이디어에 다른 관점을 가지는가? (p. 125)

위의 사례에서는 콜럼버스의 탐험을 한 가지 시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세 가지 이상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 관점의 차이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단원의 정리 단계에서 제시되는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내러티브를 들 수 있다. ‘비판적 사고’의 경우 소단원, 중단원, 대단원 정리 단계에서 모두 제시된다. 소, 중, 대단원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 질문을 한 가지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단원: 여러분은 남부 식민지에 환금 작물이 없었다면 노예 제도가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설명하세요. (p. 201)
- 중단원: 무역과 기술은 탐험의 성장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가? (p. 143)
- 대단원: 여러분이 뉴잉글랜드 식민지에서 성장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중동 식민지에서 성장했다면? 남부 식민지에서 성장했다면? (p. 207)

소단원과 중단원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 질문은 교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대단원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 질문은 분석적이고 비판적 질문에 추가하여 학습자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제시된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시간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 시간 여행의 경우, 도입 부분에 제시된 ‘여러분은 거기에 있다’를 통해서도 가능했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하면 되지만, 대단원에 제시된 비판적 사고 질문은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글쓰기’의 경우, 학생들에게 상상하고 탐구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 선원과 타이노 리더 간에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를 쓰도록 하거나(p. 115), 탐험가와 함께 여행하는 것처럼 상상하여 여행 일지를 쓰도록 한다거나(p. 132), 스페인이 임무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여 짧은 보고서를 쓰도록 한다거나(p. 150), 매사추세츠에 정착한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고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는 글쓰기(p. 184) 등이

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정서 등을 반영한 내러티브가 담긴 글쓰기가 될 수 있다.

대단원의 정리 단계에서는 ‘Activities’를 통해 학습한 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제시된다. 이는 ‘글쓰기’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글쓰기’의 경우 북미의 새로운 식민지로 정착자들을 오도록 설득하는 광고를 쓰도록 하며, ‘프로젝트’는 북미 탐험과 초기 식민지화에 관해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도록 한다.

다. 내러티브의 특징

미국의 초등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을 수 있는 내러티브들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였다. 소단원의 도입부에 제시된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학습자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서술되며, ‘전기’, ‘역사 속의 아이들’, ‘관점’ 등의 내러티브에서도 읽기 자료와 질문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시민교육의 요소라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내러티브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 단원에서는 신뢰, 책임, 돌봄, 공정함 등의 가치를 내러티브와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셋째, 본문을 서술할 때 핵심만을 제시하는 객관적 언어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견이나 가치가 포함된 내러티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탐험가를 기업가로 묘사하는 사례를 통해 과거의 인물과 현재의 인물을 연속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며, 하나의 사건을 한 두 줄이 아닌, 여러 문단에 걸쳐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대부분의 내러티브는 읽기 자료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질문들은 요약하는 질문, 분석적 사고와 상상력을 요하는 질문, 과거와 현재를 관련짓는 질문들이었다.

다섯째, 다양한 장르의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저널, 전기, 편지, 관점 비교, 대화, 보고서 등의 내러티브를 제시하거나, 학습자가 직접 만들어 내도록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인지와 정서를 가능하게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 역사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를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양국의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내러티브의 특징을 보다 잘 살릴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의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초등 역사 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도입, 주제 학습, 정리 단계에서 내러티브를 골고루 활용하였으며, 저자와 만화 캐릭터의 목소리를 내는 읽기 자료 중심의 내러티브, 학습자의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는 질문 형태의 내러티브, 학습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텍스트, 확산적 사고를 요하는 내러티브 등이 활용되었다.

미국 초등 역사 교과서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을 수 있는 내러티브, 시민 교육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자세하게 풀어나가는 내러티브 텍스트,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 내러티브, 다양한 장르의 내러티브 등이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내러티브 사례 비교를 통해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도입 단계에서 내러티브가 활용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단계에서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내용 개관과 핵심 내용을 시사하는 질문 형태의 내러티브를 제시하였다. Jeong, Ji-Whang(2005)은 역사가의 역사적 문제 인식과 해결을 문답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도입 단

계에서의 내러티브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과서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마치 과거에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된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입 단계 내러티브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입 내러티브에서는 저자가 학습자를 과거의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각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마치 과거에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된 읽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적 감정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읽기 자료와 질문을 함께 제시한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읽기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많고, 미국의 경우 읽기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질문을 마지막에 배치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질문을 먼저 제시한 경우 질문에 답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읽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자료 안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부분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읽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추측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Jeong, Ji-Whang (2005)은 역사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내러티브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학습자의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하는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다면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p. 100)’ 하는 내러티브가 있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어 상상해보도록 요구하는 질문이 자주 활용된다.

셋째, 본문의 텍스트 서술에서 객관적 서술뿐만 아니라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로 서술된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제 학습을 위한 본문 내에 상자 글이나 만화

캐릭터, 읽기 자료 등의 형태로 내러티브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본문의 텍스트 서술에서는 대부분 저자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은 채 간략한 설명식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일부 소단원에서는 저자의 의견과 가치가 포함된 내러티브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저자의 의견이나 가치가 포함된 서술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서술이 많이 활용된다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역사 교육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의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객관적 언어’로 제시되며, 단락들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Ahn, Jung-Ai, 2007). 우리나라의 경우 한 페이지에 다양한 상황이 묘사되어 각 문단마다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한 문단이 한두 줄로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내용을 여러 문단에 거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 지면 제약 및 단가 제한으로 인해 한 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담겨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역사 기능을 위한 내러티브가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리 단계에서 역사 기능을 다루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도입 단계에서 역사 기능을 다루는 내러티브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리 단계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같은 역사 기능을 요하는 질문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도입 단계에서의 역사 기능을 위한 내러티브의 활용이 더 많은 편이다. 역사 기능을 위한 내러티브가 도입 단계에 제시된 경우, 본문을 학습하는 동안 역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 기능을 위한 내러티브가 정리 단계에 제시된 경우, 해당 단원의 학습이 끝난 후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역사적 인물에 관한 내러티브를 공통

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자 글’이나 ‘작은 이야기 큰 역사’ 등을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애쓴 인물들과 당시 학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기’를 통해 노예, 유럽인, 원주민 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이해와 간접적인 감정 이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전기’를 통해 신뢰, 존경, 책임, 공정, 돌봄, 애국 등의 시민 교육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사회과 및 역사과의 성격과 교육과정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과 목표」에 따르면, 사회과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고, 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된 「역사과 목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으로 설정되고 있다(MOE, 2015). 미국의 「사회과를 위한 교육과정 표준」에 따르면, 사회과는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교과이고, 「미국사를 위한 교육과정 표준」에 따르면, 역사과는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Joo, Woong-Young, 2010). 미국의 경우 역사과 또한 사회과의 교육목표와 마찬가지로 시민성 함양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 시민 교육의 가치를 교육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내러티브를 활용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관련짓는 내러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흥미를 느끼고 공감하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내러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과거와 현재를 관련짓는 내러티브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읽기 자료나 질문, 학습자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내러티브를 통해 학습자가 과거와 현재를 관련지을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사적 기능을 다루는 내러티브를 본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에도 역사적 기능을 다루는 내러티브가 선정되어 있지만, 정리 단계에 제시되고 있어서 본문 내용을 학습하면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역사적 기능을 다루는 내러티브를 도입 단계에 배치한다면, 해당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역사적 기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역사 기능 내러티브를 본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의 역사교육이 ‘사회과로서의 역사학습’의 성격을 지향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입시 위주의 역사 학습이 아니라, 사회과로서의 역사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도울 수 있는 내러티브의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 교육을 통해 사회과가 추구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가치 요소를 다루는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문을 서술함에 있어 저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내러티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는 내용에 대한 현장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한된 지면 안에서 교과서가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간결한 설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제한된 지면이 문제라면, 저자의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해당 온라인 주소를 교과서에 소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비교·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내러티브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후속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내러티브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의 포괄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역사적 사고 기능과 내러티브를 관련지어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고 기능 함양을 위한 균형된 내러티브 개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Jung-Ai(2007). Narrative text and history learning, *History Education*, 103, 35~67.
- Barton, K. C. & Levstik, L. S.(2004).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Mahwah, New Jersey: Larence Earlbaum Associates, Inc., Publishers, p.133.
- Berson, M. J. · Howard, T. C. & Salinas, C.(2007). *Social Studies: The United States*. Florida: Harcourt.
- Bruner, J. S.(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 Soo-Hyun · Park, Chang-Un(2013). The analysis on degree of concerns for STEAM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3), 743~755.
- Jeong, Ji-Whang(2005). A study on developing historical thinking by applying narrative description, *Elementary Social Studies Education*, 17(2), 92~118.
- Joo, Woong-Young(2010). The purpose of history education in the subject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History class, *The Journal of History Education*, 45, 3~32.
- Kang, Hyun-Suk · So, Kyung-Hee · Park, Chang-Un · Park, Min-Jeong · Choe, Yun-Gyeong · Lee, Ja-Hyun Joint Translation(2007). *The theory and practice of narrative curriculum*. Seoul: Hagidang.
- Kang, Hyun-Suk · Kim, Kyung-Su Joint Translation(2010). *Making Stories*. Kyunggi-do: Education Science Company.
- Bruner, J. S.(2002). *Making Stories: Law, Literature, Life*.
- Kang, Sun-Joo(2011). How should elementary school History organized? *History Education*, 117, 29~63.
- Lee, Ju-Yeon · Kim, In-Sook(2014). The effects of applying narratives at the history instru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8(3), 195~221.
- Moe(2015). *Social Studies Curriculum*.
- Moe(2016). *Social Studies 6-1*. Seoul: Dong-A Publisher.
- Moon, Jae-Kyung(2015). 2014 Survey of awareness about history of elementary schoolchild, *History and Educaion*, 12, 25~65.
- Moon, Jae-Kyung · Jeong, Mi-Ran(2015). Review of awareness of elementary history, *History and Educaion*, 11, 22~59.
- Park, Min-Jeong(2006).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concept of narrative: Storytelling, meaning-making, and communi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7(4), 27~47.
- Park, So-Young · Kim, Dae-Hyun(2012). An analysis of narrative text described in elementary S ocial Studies textbook of South Korea and the U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4), 125~150.
- VanSledright, B. & Brophy, J.(1992). Storytelling, imagination, and fanciful elaboration in children's historical reconstruc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4), 837~859.
- Won, Hyo-Heon(2010). Exploration of teaching elements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for teaching professional growth,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2(2), 231~244.
- Yu, Jeong-Mi · Choi, Yong-Gyu(2010). Developing elementary history material using contrast narrative, *Social Studies Education Research*, 12, 67~94.

-
- Received : 15 March, 2016
 - Revised : 08 April, 2016
 - Accepted : 11 April, 2016